

삼전·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오늘 상장

국내 최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 양강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정면 승부에 나섰다. 코스피200 레버리지 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자산운용은 현물납입 구조와 대규모 유동성을, 반도체 ETF 시장을 선도해 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외국인 자금 유치와 현금설정 구조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같은 상품을 두고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운 양사의 승부수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해외 투자 수요 국내로 저보수는 기본, 유동성 ↑”

미래에셋자산운용

외국인 자금 3290억 유치... 경쟁력 자신

“3290.”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가 26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열린 ‘TIGER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숫자다. 27일 상장하는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 규모다.

김 대표는 “3290억원은 이번 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금”이라며 “TIGER ETF 최초 상장 상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상장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압도적인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상품의 경쟁 상대를 국내 운용사가 아닌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설정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국 엔비디아·테슬라 2배 상품 등에 투자하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원래 취지는 해외로 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가져와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ETF 전문 투자자 가운데 이번 상품을 통해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상품의 상장 규모는 총 1조3390억원이다. TIGER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5920억원,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7470억원 규모로 상장된다. 총보수는 연 0.0901%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강조한 경쟁력은 유동성이다. 이정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상무는 “일각에서는 저보수와 유동성의 경쟁으로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지만 저보수는 기본”이라며 “유동성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금 설정·환매 방식을 채택했다. 이 상무는 “현금 설정 구조에서는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는 운용이 가능하다”며 “LP 역시 선물 중심으로 헤지할 수 있어 호가 스프레드와 괴리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 역량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ETF리서치본부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겉으로는 현물형 2배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선물이 100~140% 수준 포함되는 구조”라며 “파생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운용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주 뒤면 6월 동시만기일이 다가온다”며 “결국 롤오버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상품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국내 첫 현물납입형 구조 “숨겨진 비용 절감 효과”

삼성자산운용

업계 최다 25개 AP·15개 LP 계약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강점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숨겨진 비용 절감을 내세웠다.

삼성자산운용은 2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2종의 운용전략과 투자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날 김두남 삼성자산운용 고객마케팅부 문장(부사장)은 “타사 상품에 비해, 삼성자산운용의 레버리지 노하우를 충분히 결집 시켜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운용에서 한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물형이면서도 현물납입형 구조의 상품은 최초”라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7일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선보인다.

설정액은 역대 ETF 최대 규모인 총 2조4000억원(삼성전자 1조665억원·SK하이닉스 1조3665억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해당 종목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한다.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해 총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레버리지 14개·인버스 2개)을 동시 출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의 가장 특징 중 하나로 현물 레버리지인 점을 꼽았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을 2배 추종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을 혼합한다. 이번 상품은 포트폴리오 내 선물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보유하고 있는 선물을 매월 롤오버(만기연장)할 때 발생하는 매매 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현물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삼성자산운용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과 선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매매할 수 있어 시장 충격에 따른 위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보유한 현물에서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레버리지 상품의 설정·환매 방식을 현금납입이 아닌 현물 납입방식으로 설계했다. 임 본부장은 “현금납입형 대비 연 1.1~1.4%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수율(연 0.29%)이 다른 운용사들(0.0901~0.25%)보다 높은 수준이나 숨겨진 비용을 제외하면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업계 최다인 25개 지정참가회사(AP)와 15개 유동성공급회사(LP)를 확보해 상장일 개장과 동시에 업계 최다 파트너사들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공급자 사이 완전 경쟁을 통해 풍부한 호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대비 괴리율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추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권·연기금 해외 사모대출 56조 육박

금융권 총자산 대비 0.42% 수준 당국 “리스크 관리 가능”

금융권과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가 5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투자 규모와 자산 대비 비중,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관

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전 금융권과 주요 연기금·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2월 말 기준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조5000억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55조9000억원이다.

해외 사모대출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

려운 기업 등에 사모펀드나 기업성장기구(BDC), 대출담보부증권(CLO)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투자 자산이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과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점점 대상에 올랐다.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023년 말 2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7조4000억원, 2025년 말 30조8000억원

〈권역별 총자산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

(단위:조원.%)

Table with 9 columns: 구분, 합계, 보험, 상호**, 증권, 은행, 여전, 자산운용, 저축은행. Rows include 2026년 2월말 투자규모[A], 권역별 총자산[B], and 대비[A/B].

*총자산은 2025년말 업무보고서 기준, **총자산은 중앙회 기준 총자산.

으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관련 우려가 확대되면서 올해 2월 말에는 30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사가 20조5800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금융권 전체 총자산 73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은 0.42%에 그쳤다. 보험권도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1.53% 수준이었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맞춤형 교육 추진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지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주요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내부거래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

일 서울 사옥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의 주요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날 교육에는 상장법인 임직원 60여명(약 40개사)이 참석했으며, 상장법인의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과 기업의 내부통제 역량 및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건전성과 기업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장법인 내부자 예방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 투명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상장법인 공시·재무·회계·IR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